아파트 건설,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

전주시, 간담회 개최… 하도급 70% · 지역자재 80% 이상 이행 · 지역인력 활용 등 요구

전주시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과 지역자재 사용을 늘려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시는 5일 전주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13개 단지 공동주택 시공사 현장소장과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및 지역자재 구매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최근 전주지역 대규모 아파트 건설 시 대부분 타지역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하도급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동주택시공사에 사업계획승인 시 △지역업체 하도급 70% 이상 △지역자재 80% 이상 등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노동인력과 기술인력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인력을 활용, 지나친 저가 하도급을 지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문건설 관련 협회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시공사 측은 지역업체의 경우 공사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비율도 높은 만큼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품질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평가자료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하도급 참여와 지역자재 구매 확대를 위해 이행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로 사업지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관련 협회와의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70%이상과 지역자재 사용율 80%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지도 및 실태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경쟁력 향상 위한 지원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전주시 교통안전과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고질체납을 차단하고 교통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올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상시 영치한다고 5일 밝혔다.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총 3개반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차량 밀집 지역에 출장,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단속(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후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번호판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 교통안전과를 방문, 체납액을 납부하고 직접 찾아가야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여부는 전주시 교통안전과(063-281-2547)로 문의하거나 위택스 또는 전주시 과태료 홈페이지(car.jeonju.go.kr)를 통해 직접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는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고 체납액도 매월 1.2%씩 가산(최고 77%까지)되므로 자진납부해 달라"면서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의무(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우리집 앞에 문패 5일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 집집마다 아름다운 문패가 걸리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작은빨간집모기' 확인

전주시보건소, 일본뇌염 적기 예방접종 당부 · 방역활동 강화

전주시보건소는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질병관리본부 4월1일)한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이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시점이 빨라지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환자가 9명 발생, 2명이 사망했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야외 활동 시 밝은 색 긴 바지와 긴소매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또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옷이나 피부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 회피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인공 용기,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에 고인 물이 없도록 환경 정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모기서식지 발견 시 전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3-281-6341~2)으로 신고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이미숙 "대한방직 근로자 고용보장을"

전주 시의회 이미숙 의원(사진)은 5일 제349회 전주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방직 전주공장 이전 함에 따라 기존 120여 근로자 고용 보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올해 10월 대한방직 전주 공장 부지가 민간에게 매각 완료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공장이 폐쇄된다면 전주 공장의 근로자 및 가족, 전주시의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며 근로자 120여 명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대한방직 본사에 전주 공장 이전 또는 폐쇄 여부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대책에 관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방직 사측은 공장 규모를 축소해 공장을 이전 하는 방안과 모든 인원의 고용 유지는 힘든 상황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방직 전주 공장 부지 매각으로 공장 이전 규모 축소, 120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일방적 정리 해고 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 관심과 행정 협조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고미희 "보행자 안전 인도 확충을"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사진)은 5일 제3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안전 인도 확충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아동 친화 도시, 안전 도시 등을 표방하며 도시 행정을 펴왔으나 과연 현재 그러한가를 되짚었다.

고 의원은 "보행로와 차로가 구별 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가 전주시 곳곳에 산적해 있다."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인도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행자 도로가 따로 구분 돼 있지 않아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이면 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특화거리, 명품길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규남 기자

디도스 공격 · 좀비PC 만든 20대 구속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의뢰를 받아 유명 게임 사설 서버를 디도스(DDoS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디도스 공격, 좀비PC 판매광고 글을 올리고 서울, 제주, 대전 등지 PC방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악성코드를 숨겨진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공유해 좀비PC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설 서버 운영자들로부터 경쟁 서버를 공격하는 대가로 1건당 수십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해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디도스 공격을 과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취득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PC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